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국대학교병원 5층 50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10월 24일 목요일 (음 9월 26일) 제239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대도약 20년 계획 수립 착수

인구구조·경제환경 등 5차 국토계획 지역 핵심내용 연구진 등 구성 방안, 도·시군 간 역할분담 등 제시

전라북도가 2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20년간 전북도를 이끌어갈 전북 대도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도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근거하여,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 발전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다루지 못한 도 차원의 정책과 지역의 각 부문 계획을 담는다.

이날 보고회에는 송하진 도지사, 박성일·국·본부장, 용역기관인 전북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 종합계획 용역을 수행하는 전북연구원에서 종합계획 수립방안을 설명했다.

먼저, 도 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는 주요 요소로 전북도 여건 분석(인구구조·경제환경·기후변화 등) 및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전라북도 지역계획 핵심내용을, 둘째로 도 종합계획수립 추진체계로서 연구진, 추진기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방안을, 셋째로 도·시군·연구기관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 구축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도 종합계획에 담긴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 문화·관광기반의 조성, 교통, 물류·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 생활환경 개선, 지역자원의 개발과 관리, 환경의 보전·관리 및 경관계획, 도시 및 지역의 안전과 방재계획 등이다.

이와 함께 계획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행정, 재정계획 및 투자·재원 방안 등도 포함한다.

도는 내실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북연구원 연구진 20명, 전라북도 주요 실국장 12명, 시군 기획담당 부서장 14명

등 40여명으로 추진기회단을 구성·운영한다.

도 종합계획 8개 부문별 각 5명씩 총 40여명의 도내·외 대학 및 국책 연구기관 전문가로 자문단을 꾸려 완료할 때까지 자문을 받는다.

또한 각종 온·오프라인 위원회 및 포럼(소통대토 등),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참여를 유도하여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내년 3월까지 종합발전 계획안을 마련하고 4~7월에는 지역별

공청회를, 7월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8월 중앙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제4차 전라북도종합계획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우리 도의 지역 현황·특성, 대내외적 여건 변화 분석 및 전망을 반영하여 전북 대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라며 "2040년 전북의 미래 발전 비전을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혁신도시 문화향유공간... 쿨위팔위도서관 개관식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성일 원주군수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의 문화향유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할 쿨위팔위도서관 개관식이 23일 완주군 이서면 갈산로에 열렸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제2고향만들기·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논의

전북도, 대도약정책협의체 인구분과위원회 개최

전북도는 23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대도약정책협의체 인구분과위원회를 개최해 제2고향만들기 사업, 인구정책 브랜드사업 등 인구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대도약정책협의체 인구분과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형 인구정책 발굴'에 목적을 두고 운영된다.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한 제2고향만들기 사업 정책연구는 인구유입 대상을 전북 출향인, 도내 공공기관 종사자, 도내 및 수도권 대학생(청년)으로 분류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구유출 원인 등을 분석한 후 단계별 추진 전략과 세부추진사업을 제시했다.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제2고향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의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인구유입'으로 정책의 변화를 도모했다는 의미가 있다.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은 종합대책의 내실화와 더불어 선택과 집중투자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인구관전의 정책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해 발굴 중으로 저출산 극복, 청년유출 방지, 인구유입 등의 분야가 논의됐다.

한편, 전북도는 그간 인구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인구종합대책 및 올해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총괄기능을 강화

하고 조례제정과 민관위원회 구성으로 '종합·체계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발표해 지금까지의 '출산율 제고정책'과 더불어 '향후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라는 인구정책의 큰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졌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16면 -임종명 김제시장 취임 100일

2025 드론축구 월드컵 전초전

전주 FAI 월드컵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 내달 1~3일 개최 세계 최대 규모 드론스포츠 열전... '드론축구' 공식 첫 선

'2025 전주 드론축구 월드컵'의 전초전이 될 세계 최대 규모의 드론스포츠대회가 전주에서 열린다.

전주시와 국제항공연맹(FAI), 한국모형항공협회, 대한드론축구협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2019 전주 FAI 월드컵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월드컵 마스터즈'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산하의 국제항공연맹(FAI)에서 주최하는 국제 드론레이싱 경기로, 세계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FAI가 주최하는 마스터즈급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20개국 80여 명의 각국 대표 드론레이싱 상위랭커 선수와 관계자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크게 공식 경기인 드론레이싱과 지난 4월 FAI 시범종목으로 공식 채택된 '드론축구' 경기로 운영된다.

드론레이싱은 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드론축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각각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공식경기인 드론레이싱의 경우 1일과 2일 이틀간 코스적응과 예선전이 기록경기방식으로 펼쳐지며, 3일 본선경기에는 예선을 통과한 32명의 선수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자유를 겨루게 된다.

특히 이번 전주 월드컵 마스터즈 대회에서 눈여겨볼 점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터널 형태의 레이싱 코스가 손꼽힌다.

기존 드론레이싱 코스대회에서는 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레이싱 코스와 관망석이 동떨어져 레이싱 코스의 속도감을 체감하기 어려운 형태지만, 터널형 코스의 경우 LED라이트가 장착된 너비 4M, 높이 3M의 프레임이 총 400M의 빛의 터널 형태의 트랙을 이루고 있어 초근접 거리에서 안전하게 관람이 가능하다.

또한 시범종목으로 진행되는 드론



김종우 넥스브레인 대표와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 박찬덕 한국모형항공협회 협회장이 23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 전주 FAI 월드컵 드론 마스터즈 국제대회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축구 경기는 첫날 우수 유소년 드론축구팀의 초경경기과 2일 전국 일반부(아마부, 루키부 36개팀) 경기에서 이어 3일에는 드론레이싱 경기에 참여한 외국선수들과 국내 드론축구선수가 함께 팀을 대표할 팀을 구성해 국제친선 경기도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번 대회기간 월드컵 경기장 남쪽 주차장 일대에는 드론을 직접 조종해보고 미니드론축구, 드론경주 등 드론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치맥피크닉 공간 등이 마련되고, 부대경기로 드론기리 서로 총출하여 겨루는 드론클래시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사전예약 없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 상시 운영되는 드론체험부스 중 드론스포츠 체험아카데미 사전접수 시에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시는 국내 최초로 열리는 이번 대회가 드론스포츠 거점도시로 전주의 위상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드론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양원 부시장은 "드론은 4차산업의 핵심 선도 기술로 우리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스포츠 종목으로도 주목받으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대회는 일반시민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국제급 드론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직접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다 함께 열어가자

새로운 모약의 시대

7대 분야별 추진전략

-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견인
- 신성장동력산업 구축으로 새만금 경제중심도시 도약
- 스마트 농생명산업 육성으로 첨단농업 메카 조성
- 누구나 향유하는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
-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구현
- 상생과 평화의 고품격 글로벌 문화관광 선도
- 혁신과 소통으로 시민체감형 열린시장 전개